

Kevin E. Frederick 박사, Waldensians, 강의 6, 역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신화를 없애다 © 2024

Kevin Frederick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왈도파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하는 케빈 프레데릭 박사입니다.
이것은 여섯 번째 세션, 역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신화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성경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한 것과 같이, 에베소에
머물러서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가르치십시오. 그것은 믿음으로 아는 신의 교훈이
아니라 추측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훈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써서 그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새로 개종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자신의 족보나 신화적 기원 이야기를 강조하는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 드러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신앙보다는 혈통이나 업적에 근거하여 자신의
신뢰성을 확립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발덴시아 운동의 기원을 탐구할 때,
발데스의 삶에 근거한 주요 역사적 서사에 대한 두 가지 대체 설명이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게다가, 각 대체 서사 내에는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데, 이는 역사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도파 운동의 설립은 9세기에 토리노에서 온 클로드라는 반항적인 가톨릭
주교의 가르침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기원 이야기와 겹쳐져 있습니다. 4

세기 콘스탄티누스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더 오래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콘스탄티누스가 교회에 준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사망 당시 4세기 초에 로마 제국의 절반을 교황 실베스터에게 유증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학문에서 콘스탄티누스의 기부 이야기가 신화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원래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8세기에 로마 교회 안팎의 비평가들에게 교회가 상당한 부와 재산을 획득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서사적 신화 는 원래 8세기에 만들어졌지만, 수백 년 후에 발도파 신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큰 부와 권력을 수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던 것에 반대하여 초기 교회 내에서 발도파가 정의한 고대 분열의 기원을 강조하기 위해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가 아니라 콘스탄티누스의 후계자라고 말합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기부 신화는 교회의 덜 알려지고 작지만 충실한 잔당의 존재를 암시하기 위해 더욱 수정되었는데, 이는 가난과 겸손의 서약으로 표시된 그리스도의 종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기부에 대한 수정된 신화는 13세기 후반부터 발도파 추종자들에 의해 구전으로 널리 전해졌습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부할 때까지 교회는 거룩했지만 실베스터 1 세는 기부를 수락했고 실베스터의 동료는 거부하고 그를 떠났습니다.

천천히, 교회의 대부분은 사악함에 빠졌고, 교회의 작은 부분은 진리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대에 대한 설명의 첫 번째 단계이며, 기부 당시 작은 거룩한 교회가 분열된 역사적 기원입니다. 그리고 나중 단계는 발도파가 이끌게 될 것이지만, 반드시 그들과 같은 시기는 아닙니다.

이 기원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도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참 추종자이자 발도파의 선조인 비교적 소수의 그리스도인 집단의 충실한

증거에 이르기까지 참된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증거가 계속되었다는 믿음을 고수합니다. 이 신화의 기록된 역사에서 가장 이른 날짜는 1367년에 쓰여진 선출자의 책이라는 출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367년의 서한은 콘스탄티누스가 325년에 로마 제국의 부의 절반을 로마 교회에 주었을 때 로마 교회가 분열된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부와 땅을 받은 실베스터 1세와, 가난을 공언하고 순수한 교회로 남기를 원하는 충실한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내에서 일어났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선출자의 책은 사도들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사도행전에서 의도적으로 반향을 일으켜 강조됩니다. 수백 년 동안 발도파 사람들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지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발도파의 기록된 역사의 많은 부분이 로마 교회에서 이단의 증거로 사용되었고 나중에 재판이 끝난 후 심문관에 의해 불태워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발도파 이야기의 기원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1172년 발데스, 리옹의 왈도가 발도파 운동의 창시자라는 사실은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그의 존재와 그가 시작한 사역을 뒷받침할 만한 역사적 자료가 충분하며, 이는 리옹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친 기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817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토리노 주교로 임명된 클로드의 토리노와 왈도의 추종자들 사이에 신학적 토대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클로드는 직설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였으며, 성경에 대한 통찰력 있고 분별력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클로드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가톨릭에서 성상 숭배를 반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구 내 모든 교회에서 성상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교리, 즉 믿음의 정당화를 설교했습니다.

클로드는 또한 연옥과 유물 숭배를 부인했고, 참회의 수단으로서 순례의 효능을 거부했습니다. 클로드는 교구 내의 교회에서 숭배되는 성상을

내던지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숭배하고 싶어한다면, 그가 한 구유에 누워 있기 때문에 구유를 숭배해야 하고, 그가 한 구유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당나귀를 숭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클로드의 가르침과 12세기에 왈도와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의 출현 사이에 직접적인 역사적 연관성을 제공하는 역사적 증거나 문서는 없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 지역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클로드의 이단적이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한 믿음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물려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클로드와 나중에 브레시아의 왈도와 아놀드가 가졌던 믿음과 실천의 유사점을 연결하는 역사적 문서가 없기 때문에 클로드가 왈도와 아놀드에게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쉽게 추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유사점은 주로 신약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인 같은 믿음의 근원을 연구함으로써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로드가 죽은 지 300년 이상 지난 후, 브레시아의 아놀드는 토리노 교구에 인접한 밀라노 주변의 롬바르디아 지역에서 작은 공동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놀드는 피터 아벨라르와 함께 공부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웃과 재산을 나누는 것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 신앙과 공동체의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놀드는 사도행전에 계시된 초기 교회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연구했습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부유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 신앙과 관행에 대한 대안적 신앙 공동체를 조직했습니다. 클로드 주교는 발도파로 분류될 수 없지만 로마 가톨릭 주교로서의 그의 선언문과 발도파의 기독교 신앙을 병행적으로 추론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클로드의 신앙이 아놀드와 그의 추종자들이 그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연히도 20세기에 이탈리아의 발도파 교회는 토리노의 클로드 주교의 성경적 증거를 인정하여 공식 출판사 이름을 클라우디아나 프레스로 지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 발도파가 깊이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연결입니다. 최소한, 발도파 신앙의 여러 원리가 8세기 클로드 주교의 가르침의 사역과 유사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로드 주교 시대에 시작되어 9세기부터 발도가 사역을 시작한 12세기까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하고, 독특하고, 분리된 신자들의 조직된 공동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근거 없는 전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신화가 만들어진 이유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선출된 자의 책의 익명의 저자는 여전히 구두 의사소통에 크게 집중하고 있는 사회 내에서 발도파 역사의 서면 텍스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서유럽에 흩어져 있던 발도파 사람들에게 유익한 교육 도구로서 기억하고 구두로 전달하기 쉬운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면 텍스트에 의존하지 않고 쉽게 암송할 수 있는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종교 재판관들은 역사 전반에 걸쳐 발도파 기록, 저술, 책을 파괴했으며, 발도파의 기원을 보존하는 데 구전 전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과거를 재구성하는 데 더 큰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후 세대가 신앙의 기원에 대한 요점을 거꾸로 읽으려고 시도하면서 신화에 대한 수많은 수정안을 삽입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선출된 자의 책은 매우 짧고 시적인 문서였습니다. 일부는 발데스의 삶의 계산 중에 가장 날카로운 단속적인 리듬 구절로 쓰여졌습니다.

텍스트의 간결성과 리듬은 모두 암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된 텍스트를 시사합니다. 선출된 자의 책에서 발견되는 서사는 본질적으로 설교에 대한 부름과 함께 가난과 순결의 서약을 채택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한 도구였으며, 그것들이 발도파 순회 설교자의 삶에서 어떻게 도구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책은 또한 초기 사도 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에 직면했던 것처럼 모든 추종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박해에 직면하여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도록 격려하려는 노력에서 교훈적이며, 따라서 부유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대조적으로 자신을 참된 교회의 충실한 잔당으로 보는 발도파의 인식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13세기에 종교 재판소가 설립된 이후부터 교회가 허가한 박해의 물결이 계속되는 동안, 자신을 교회의 진정한 잔재라고 묘사한 서사는 충실한 증언을 유지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실베스터에게 기부되었다는 신화의 이후 수정 사항은 선출자의 책의 후속 판에서 변경된 내용을 관찰하여 추적할 수 있습니다. 12세기에 발데스라는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14세기에야 발데스에게 기인된 이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367년 선출된 자의 서 초판에서 12세기의 발데스가 처음으로 사도적 이름인 베드로와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1420년, 선출된 자의 서의 후기 개정판에서 베드로 발데스라는 사람이 14세기 교황 실베스터와 동시대인으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그 판에서 베드로 발데스는 발도파 운동의 창시자가 아니라 실베스터의 동료 중 한 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기부 당시 참된 교회의 보존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도행전의 창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발데스와 그의 추종자 사이의 유대감을 효과적으로 암시했습니다.

또한 15세기 초에 또 다른 발도파 사본이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설교적 글이 피터 발데스라는 로마 가톨릭 추기경의 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주의 역사의 사례 각각에서 발도파의 기원을 전하는 이야기가 14세기와 15세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도파 증인의 역사에 대한 이러한 개정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수백 년 동안 박해가 수행한 역할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한 세대 만에, 1215년에 발도파 운동과 그 추종자들이 가톨릭 교회에 의해 이단자로 낙인찍힌 후, 교회는 발도파에 대한 분노를 종교 재판소라는 매우 잘 조직된 검찰 교회 법원 시스템을 통해 표출했습니다. 종교 재판소는 원래 카타리파의 이원론적 이단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는 발도파의 추종자들에게 모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종교 재판소는 교황청이 모든 종교 재판관에게 배포한 서면 지침서를 광범위하게 조직하고 표준화했습니다. 종교 재판소의 효과적인 기소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종교 재판소는 결국 가톨릭 성 도미니코 교단에 독점적으로 할당되었습니다.

도미니코회에서 가톨릭 교회는 모든 이단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가졌습니다. 도미니코회는 이단자를 처형하고 화형시키는 등 이단자를 처벌하기 위해 시민 치안판사와 교회의 노력을 조정했습니다. 1480년대에 교황이 되기 전에 심문관으로 일했던 재위 중인 교황 인노첸시오 8세는 발도파에 대한 성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모든 발도파 신자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교회의 모든 분노를 행사했습니다. 대주교 카타네오의 지도 하에 발도파 십자군은 코트니아 알프스 지역의 발도파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었고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박해에 직면한 수천 명의 발도파 희생자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도미니코회의 권위 하에 종교재판이 조직된 13세기 중반부터 수천 명의 발도파 신도들의 재산이 압수되어 로마 가톨릭교인에게 팔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발도파 신도들이 고문을 당했고, 종종 신앙 때문에 화형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단자들의 시신을 불태우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 육신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종교재판 초기에는 발도파 신도로 확인된 사람들의 시신을 죽은 뒤에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발도파 어린이들은 종종 로마 가톨릭 사제와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가족에게서 빼앗겨서 교회에서 로마 가톨릭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양육되었습니다. 박해는 수백 년 동안 발도파 운동 전체와 모든 발도파 신도의 삶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대박해에서 지도자들과 신도들의 신앙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선출된 자의 책은 예수의 가르침과 초기 사도적 신앙 공동체와 직접 연결되어 발도파 운동의 지속적인 유산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발도파 역사에 대한 신화적 이해를 반영하면서, 피터 빌러는 역사가 매우 예리하게 기억될 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과 기억의 속임수를 통해 단순화되고 합쳐질 수 있으며, 개별 친구의 정신의 프리즘을 통과하는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채색되고 각도가 조정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이 모든 파생어는 결국 그 시대에 박해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역사가 널리 사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발도파 설교자 바르바의 확고한 성격과 그들의 분산된 신앙 공동체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무자비한 박해를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프랑스 국가인 사보이 왕이 조직한 협력적인 군사 공격에서 500년 이상 살아남아 33번의 조직적 박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기간 내내, 바르바는 그리스도가 보여준 겸손과 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중심을 둔 믿음을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이것이 발도파 사람들이 신앙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이끌었습니다. 고대 신화는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에서 발전했고 발도파 설교자와 추종자들이 죽음의 순간에도 붙잡을 수 있는 강하고 확실한 신앙을 갖는 데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의의 신성함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 그의 원래 제자들과의 직접적인 연결 감각이 없다면, 발도파 운동은 여러 세대에 걸친 끊임없는 압력 하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단으로 낙인찍은 중세의 다른 모든 운동과 같은 길을 갔을 것입니다.

개신교 개혁의 첫 수십 년 동안, 개신교가 신뢰성과 정통성을 확립하던 시기에 상당수의 개신교 학자들은 발도파를 종교적 선조로 지적하며, 그들의 기원을 둘러싼 신화를 알아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발도파를 자신의 신앙의 선구자로 여겼고, 그들을 진정한 교회의 수호자로 여겼습니다. 초기 발도파 역사가 존 레거와 사무엘 모어랜드는 17세기 초 발도파 역사를 편찬하면서 그들의 기원을 둘러싼 많은 신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당시와 당시에 이해되었던 역사학의 도구를 사용하여 기록된 발도파 공동체의 최초의 주요 역사 작품을 개발했습니다. 두 역사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역사를 보존하고자 하면서 이전 세대에서 전해진 구전 역사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밀, 지리적 고립, 박해의 경우에서 나타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오래되고도 입증되지 않은 역사적 신념과 역사적 정확성을 혼합하는 것이 허용 가능한 역사학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역사는 발도파 운동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단으로 간주한 유일한 기독교 운동이었고, 현대까지 살아남았다는 믿을 만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개신교 개혁 이전에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삶, 죽음, 부활의 영향을 기독교 평신도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한 것은 설교자 바르바가 이끄는 발도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내내 발도파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의 지시에 대한 충실한 성경적 증거를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신념과 관행의 본질은 모든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충실한 그리스도인 증인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발도파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하는 케빈 프레데릭 박사입니다. 여기는 6번째 세션, 역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신화를 몰아내는 것입니다.